

졸업식까지 등교수업이 원칙

도교육청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진로상담·자기개발 지원 등 학생 중심 교육활동 운영

입시학원 수강 등에 대한 편법적 출결처리 금지키로

올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설정 생활지도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수능 이후부터 졸업식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진로상담, 자기개발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등의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진로진학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금융·경제·근로교육 등 대학생 및 예비사회인에게 필요한 학습자료를 안내했다.

특히 원격수업 중심의 학사운영은 지양하고, 실기·면접·논술고사 등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 및 승인받지 않은 체험학습 활동 등에 대한 편법적 출결처리는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12월 31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내·외 생활지도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학생 안전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청소년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관리 강화, 다중밀집장

황 예방·대처, 응급처치(CPR) 방법 등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방지 등이 집중 점검 사항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능 및 기말고사 이후인 학년말은 학교마다 교육과정 정상화에 특히 힘써야 할 시기"라면서 "각 학교에서는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학사·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학생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GTEP 학생팀

전자상거래 경진 '장려상'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학생팀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16기 GTEP 전자상거래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최하고 전국 20개 대학의 119개 팀이 자체 예산을 거쳐 최종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Phi팀(전북대 무역학과 한희정(팀장), 김시은(박민주, 박재용, 임유빈, 정여준(문화과) 임세린)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에 전자상거래 협력업체인 '닥터비이오'의 모이스저 로션 제품을 입점시켜 SNS를 활용한 인스타그램 외국인 리뷰 이벤트 자체진행, 틱톡 제작 등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틱톡을 활용한 콘텐츠 도달률을 극대화했고, 최초 디지털 무역 IT 기술(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디지털 무역 위기사례 극복, 리스크 관리를 위한 Contingency Plan 구축(해킹 바이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Phi팀은 중국 위생허가 및 통관 준비를 위한 샘플 배송 상태며, 추후 트라이얼 오더 및 본 오더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네트워크 세미나 열어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지난 17일 대학 기술지주 회사인 SCALE-UP을 위한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년 만에 열린 행사로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전주대학교 LIN3.0사업단, (주)광주연립기술지주, 부산대학교 기술지주(주)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전주대 LIN3.0 사업단, 전주대 창업지원단, 기술보증기금 전북연구개발특구, (사)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 (주)유니이 주관했다.

김상진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자회사 Value-Up 세미나는 기술사업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및 자회사 간 공유를 통한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온디맨드 멘토링 지원 외에도 다각적인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해 자회사의 지속 가능 성장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2019년 설립돼 2022년 21번째의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북대학교와 선운사는 지난 17일 김동원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선운사 경주 주지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옥기술 문화보급 확산·사찰문화 교류 통한 건강 증진

전북대-선운사, 상호 협력키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한옥기술 문화보급 확산 및 사찰문화 교류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선운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7일 김동원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선운사 경주 주지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선운사는 고창군 소재 도솔산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로, 오랜 역사와 빼어난 자연경관, 소중한 불교 문화재들을 지니고 있어 사

사사찰 참배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가의 전통 건축 기술인 한옥의 부흥을 위한 협력과 한옥 및 건축문화를 소재로 한 교육과 문화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옥의 교육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옥건축 기술 및 작품, 문화의 교류 등을 상호 협력 지원하는 한편, 사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각종 건강증진 교류도 협력할 계획이다.

경주 선운사 주지 스님은 "전북대와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한옥 문화의 발전을 위해 앞장설겠다"며 "양 기관

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옥 및 건축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협약은 친환경·재난소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지니고 있는 전통 한옥 소재 사업 기술 고도화 및 한옥의 건축문화와 사찰문화를 배경으로 한 각종 문화교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 대학이 보유한 한옥교육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양 기관의 한옥 건축 분야 및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종이 인쇄물 사용 안한다'... 전주비전대, 페이퍼리스 캠퍼스 실행 일한

ESG 교육정책 중 탄소 중립 위해... 태블릿PC로 대체키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성모)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정책 중 환경부문 실천 방안과 탄소 중립을 위한 'Paperless' 캠퍼스 실행의 일환으로 보직자와 중간관리자 회의에서 종이 인쇄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2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주비전대는 총장과 각 부 처장 등 보직자 회의와 행정부서 팀장, 학과회의 등을 통해 그간 종

이 인쇄물로 배부되던 회의자료들 모두 없애고 태블릿PC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주비전대 기획처 채정수 처장은 종이사용을 줄이고 대체 태블릿을 사용할 경우, 빠른 데이터의 수정과 대용량 데이터 보관 시 보안성 증가 및 서류의 훼손방지, 콘텐츠 검색 등의 편리성 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모 총장은 "다양하고 잦은 회의

에서 종이 인쇄물로 회의자료들을 배포해 왔지만 한우 모든 조직과 행정에서는 디지털 회의로 바뀌어질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이후 대학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실제로 비대면 회의를 통해 컴퓨터 활용이 주요했던 만큼 '페이퍼리스 회의'는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왔으며, 우리대학에서도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ESG 운동에 동참해 실천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입주기업 피칭 역량 강화·투자유치 지원

전주대, 전북과학대 BI와 협업 'IR투자 마켓 데이'

전주대학교 BI(Business Incubator,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17일 전북과학대학교 BI와 협업해 입주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IR 투자 MARKET 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의투자 대회를 통해 입주기업의 피칭역량 강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에이퍼워(주), 아이벡터, (유)하이컴비오와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유)미스타푸드, (주)비즈니스 세르보네

크가 참여했다.

또한 엑셀러레이터인 (주)유니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자 멘토로 참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상호협력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이상우 센터장은 "레고랜드 등의 사례로 인해 투자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며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 및 사업화 지원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중



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받은 센터로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약 5년간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벤처창업관 1층 103호(063-220-4619)에서 입주 및 창업·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

방사선 감시기 성능향상 기법 개발

전북대 심하영 대학원생, 방사선진흥협 젊은과학자상



전북대학교 심하영 대학원생(지도교수 서희)이 2022년 방사선 과학기술 산업진흥 연합회차대 회에서 한국방사선진흥회회장이 수여한 '젊은 과학자'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방사선진흥회에서는 매년 방사선 산업 진흥을 위해 이 대회를 열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이용 진흥 및 안전 증진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심하영 학생은 현재 방사선 관련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다수의 방사선 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사선 감시기의 성능향상 기법을 개발, 행정안전부의 '방사능재난 대피시설 방호기술 개발' 과제에 참여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실내 대피시설 및 대피수단에 대한 방호성능 기준수립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심하영 학생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준 교수님과 연구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방사선 이용 및 안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재난사고 대응, 실전과 같이

도교육청, 25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학교현장 연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25일 5일 간 도내 교육행정기관 1,309곳에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자연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학교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훈련은 각급 학교 및 기관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를 가정해 실제와 같은 현장 훈련과 토론훈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토론훈련은 5일 동안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실전 중심의 토론훈련을 통해 초기대응 및 상황판단, 상황관리, 결과 보고 등의 절차를 익힌다.

세부적으로는 21일 특수학교 통학버스 사고 수습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22일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 확보 방안 23일 공단지역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 24일 미세먼

지 경보 발령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 25일 실험·실습실 화재사고 수습 방안 토론 훈련 등이 이어진다.

특히 훈련 셋째 날에는 전주 팔복초등학교에서 공단지역 화학물질 유출을 가정해 실전 훈련과 토론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황보고체계 점검 훈련,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소화기 사용훈련도 실시하며, 훈련기간 중 하루는 모든 기관에서 재난·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훈련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면서 "다양한 토론기반 훈련과 취약분야에 대한 실제훈련 강화로 도내 모든 교육기관의 재난대응 능력이 높아질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2022년 스타트업 패키지 WEEK 행사를 통해 지역의 창업지원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18일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WEEK 제막식의 모습이다.

지역 창업지원 협업 프로세스 구축

전북대 창업지원단, 스타트업 패키지 WEEK 통해 투자 확산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2022년 스타트업 패키지 WEEK' 행사를 통해 지역의 창업지원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IR 연합 컨퍼런스를 통해 호남권 창업중심대학 선정기업인 (주)에드아이 3억원, (주)아이즈 1억원, (주)모세퍼플 5,000만원, (주)쇼메이커 5,000만원 등 총 5억원의 투자확약을 맺었다. 이후 유망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IR 고도화까지 지원해 호남권 유망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권대규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패키지 참여기업 및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전북지역의 창업 협업교류가 활성화되는 장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 기회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연합 IR 컨퍼런스를 진행을 위해 호남권 유망기업 16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IR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 행사는 전북대 창업지원단을 비롯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7개 패키지 운영대학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6~18일까지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기관별 유망 투자 프로그램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진다.

기관 간 협업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6개의 기관이 일정별로 나눠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군산대·전주대 창업지원단과 함께 17~18일 이틀간 전북 투자